

# 薛己의 外科醫籍과 그 內容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診斷學專攻  
裴成龍·尹暢烈\*

## 關於薛己的外科醫籍及其內容的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診斷學專攻  
裴成龍·尹暢烈

通過對薛己的外科醫籍及其內容的研究, 得出以下結論:

1. 薛己所著外科醫籍中最早編纂的時『外科心法』(1528年), 之後編纂的次序是『外科發揮』(1528年), 『外科經驗方』(1528年), 『外科樞要』(1545年), 『癘瘍機要』(1554年).
2. 薛己改變以往瘍醫隨症處方的惡習, 把辨證論治引用到了外科臨床上.
3. 在望診方面不僅重視了局部的診察, 而且重視觀察全身的狀態; 還重視了四診合參, 尤其重視了望診和切診.
4. 在治療方面靈活地運用了疏通, 發散, 和解, 補托, 溫補等方法, 而且還使用了針, 砭, 灸, 熨等外治法.
5. 薛己所著的『癘瘍機要』是一部早期刊行的麻風病專著.

關鍵詞: 薛己, 『外科心法』, 外科, 辨證論治, 『癘瘍機要』.

## 1. 序 論

薛己(1487~1558)의 字는 新甫이고 號는 立齋이며 江蘇 吳縣(지금의 江蘇省 蘇州市)사람이다. 父 薛鑑도 역시 醫術에 正統하였는데 특히 小兒科에 능하여 明代의 名醫로 꼽힌다.

薛己는 어려서부터 學問에 정진하였고 金憲과 高如齋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는 科學에 여러 차례나 落榜한 이후 醫學에 대한 工夫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外科를 研究하였고 다음에는 內科와 小兒科등을 깊이 연구하였다. 正德年間에 그는 北京으로 가서 5年동안 御醫生活을 하였고 그 이후 南京의 太醫院으로 轉出하여 正六品인 院判을 지내기도 하였다. 嘉靖年間에 奉正大夫

로 昇進하였고 이어서 院使로 昇進하여 太醫院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다.

44세 때 太醫院을 떠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患者를 진료하면서 讀書과 著述로 일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지은 著書 혹은 校注, 增補한 書籍, 그리고 校勘한 醫書는 數十種에 이르고 있다.<sup>1)</sup>

薛己는 처음 家學을 이어 받아 瘍醫가 되었으며 臨床의 各科에 두루 통달하였지만 특히 外科에 능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外科發揮』, 『癘瘍機要』, 『外科心法』, 『外科經驗方』, 『外科樞要』 등의 5種類의 外科專門書籍을 남겼고 『校注婦人良方』에 특별히 “瘡瘍篇”을 추가하였으며 『保嬰撮要』에서도 그가 저술한 10卷중에 外科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 交信著者: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 280-2601, yooncy@dju.ac.kr.

1) 李林等編著, 首創溫補의 薛己.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0, p. 1.

이에 著者는 薛己가 지은 5種의 外科書에 대한 重要구성내용과 서문, 임상적인 특징, 전해오는 版本 등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2. 『外科發揮』

薛立齋는 臨床에서 外科가 능숙한 것으로 有名하며 그가 後世에 남겨준 著作中에 대부분이 外科學에 관한 著作이다. 現在 볼 수 있는 著作으로는 『外科發揮』, 『癰瘍機要』, 『外科心法』, 『外科經驗方』, 『外科樞要』의 5종류가 있다. 『外科發揮』는 1528년에 出刊한 것으로 8卷으로 되어 있으며 腫瘍, 潰瘍, 發背, 腦疽, 肺癰, 肺痿, 疔瘡, 癰癧, 痔瘻, 咽喉, 楊梅瘡 등 外科의 主要 病證을 모두 31個 論述하였다. 그는 매개 病에 대하여 우선 脈證과 治則을 羅列하고 그 뒤로 各種 治法, 方藥 및 臨床醫案을 羅列하였다. 문자가 간단명료하여 실제임상응용에 적합하게 저술되어 있다.<sup>2)</sup> 1528년 간행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立齋外科發揮敘

醫家의 內外科는 實相表裏요 惟小兒爲難治 故로 謂之 “啞科” 라하나 雖瘡瘍이 爲有形之症이나 然亦必先審乎脈이니 脈也者는 氣血之運也다 天以陰陽之運으로 成四時하고 人以氣血之運으로 成一身하니 以氣血之運은 定於所賦하고 移於所感이라 是故로 人有老少強弱之等하고 而脈亦有盛衰虛實之異라 故로 療病에 治瘡瘍者는 皆當先辨其有餘不足이라 而爲主客緩急之施則善矣니 其見於東垣 丹溪 河間 仲景之論이면 可考而知也라 吾切歎夫世之庸醫가 未嘗讀書明理하고 以瘡瘍에 試方藥하야 而遂誤人者不少也라 嘗見南京判院 薛君 『外科心法』이 精當切要可傳하고 而許其有扶困起廢之仁이라 一日에 持是編以告余先君한테 子欲以隨治驗方하야 萃以成編이면 庶克濟人이오 且以自驗其力이어나 余承先意하야 乃今分症異하고 欲而錄其既驗者한대 尤致詳於有餘不足之辨하야 而爲虛實主客之宜라 欲錄諸梓以傳하야 庶有便於窮鄉下邑之無名醫者하니 不獨自驗而已也라 少宰蒲汀李公 嘗見之하고 標曰 『立齋外科發揮』 라하고 子盍敘之오라니라 余惟

君子는 不忘乎親하고 不私其有니 夫不忘其親之謂孝요 不私其有之謂仁이니 孝則仁이오 仁則公이오 公則溥라 君之是編은 其真君子之用心哉 吾僑는 以推己及物로 求仁 而欲措天下于仁壽之域이니 是編之行은 於人에 必大有濟 故로 爲之敘하야 以推廣而傳之하노라<sup>3)</sup>

嘉靖戊子 秋孟月 朔 南京刑部員外郎 前進士 郡人 張准는 敘하노라

의가에 있어서 내과·외과는 실상 표리가 되고 오직 소아과가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어리과라 하나라. 비록 창양이 드러난 증상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반드시 맥을 살펴야 되니 맥은 기혈이 운행하는 것이다. 하늘은 음양의 운행으로 사시를 이루고 사람은 기혈의 운행으로 한 몸을 이루니 기혈의 운행은 태어날 때 확정되고 감축하는 것에 따라 옮겨간다. 그러므로 사람은 노소강약의 차등이 있고 맥에는 또한 성쇠허실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할 때 창양을 치료하는 자는 모두 마땅히 먼저 유여부족을 구별해서 주객완급의 배품을 삼으면 훌륭한 동원, 단계, 하간, 중경의 의론을 보면 가히 고찰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용렬한 의사가 책을 읽어 이치를 밝히지도 않고 중기에 방약을 시험해서 드디어 사람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적지 않음을 통탄 하였다. 일찍이 남경의 태의원 판원 설기의 외과심법이 정밀하고 합당하고 아주 핵심적이어서 가히 전할만하다는 것을 보고 그의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고 폐한 사람을 일으키는 어진마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루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고하니(아버지가 이르기를) “네가 經驗方까지를 잘 정돈하여 모아서 책을 만들면 능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요, 또한 스스로 경험하여 그 힘쓸지어다.” 하나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제 증상의 다름을 구분하고 이미 경험한 것을 기록할 때 더욱 유여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구별에 상세함을 다하여 허실주객이 마땅하도록 하였다. 인쇄를 하여 전하여 궁항과 시골의 명이가 없는 곳에 편리함을 두고자 하니 스스로 증험할 뿐만이 아

2) 朴載正, 薛己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5. p. 9.

3) 薛己, 薛氏醫案(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

닌 것이다. 소재 벼슬에 있는 이포정이 일찍이 이것을 보고 『입재외과발휘』라고 제목을 달고 그 대는 어찌 서문을 쓰지 아니하는가 하나라. 내가 생각건대 군자는 어버이를 잊지 않고 그 소유를 홀로 독점하지 않나니 어버이를 잊지 않음을 ‘효’라하고 그 소유를 사사로이 하지 않는 것을 ‘인’이라고 하니 효도하면 인하게 되고 인하면 공하게 되고 공하면 넓게 퍼지게 된다. 설기의 이 책은 그 진실로 군자의 마음씀인저. 우리 유가는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으로 인을 구하여 천하를 仁壽의 지역에 두고자 하니 이 책의 간행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크게 구제함이 있을 것이므로 서술을 하여 널리 추천하여 이를 전하노라. 가정 무자년(1528년) 음력 7월 초하루 남경형부원외랑 전진사 군인 장희는 서술하노라.

위의 서문은 설기가 42세되던 해에 책이 성편되어 간행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는데 『外科心法』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外科發揮』가 나오게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薛立齋는 以前의 瘍醫들이 症에 따라 處方을 내는 고질적인 習慣을 改變하고 外科臨床에 韓醫學基礎理論을 導入시켰다. 外科疾病에 대해서도 病名을 바탕으로 辨證論治를 진행하고 상세하게 本末虛實을 따졌다. 그는 外科疾病의 診斷에서 四診參參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특히 望診과 切診을 중시하였다.

望診에 있어서 局部表現을 觀察하는 것을 중시하는가 하면 또한 全身의 狀態를 관찰하는 것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煩雜한 外科病證을 綱目으로 分類시켜 條理가 分明케 하여 쉽게 病을 診察하고 診斷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면 瘡瘍病에 대하여 만약 膿이 나오지 않은 者는 腫瘍이라고 稱하고, 邪氣가 表나 裡에 있거나 또는 經絡에 있는 差異와 邪氣가 實하거나 또는 正氣가 虛한 등 區別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膿이 이미 터진 者는 潰瘍이라고 稱하고 陽氣虛, 陽氣亡, 氣血虛弱, 氣血虛가 甚한 등 區別이 있으므로 따라서 치료도 不同하다고 하였다. 또 天疱瘡를 예를 들면 八綱辨證에서는 陰, 癰, 虛, 實

등 四證으로 區分하고, 虛證에서 또 陰虛와 陽虛로 구분하였다. 臟腑辨證에서는 胃氣虛, 脾氣虛, 脾肺氣虛, 脾腎氣虛 및 膀胱衛虛, 肝經陰虛 등으로 區分하였다. 또한 癰瘍에서는 本證, 兼證, 變證, 類證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兼證이 14개, 變證이 21개, 類證이 13개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兼證中の 頭目眩暈에서 또 氣虛, 血虛, 脾氣虛弱, 脾虛有痰, 肝經實熱, 肝經虛熱, 脾肺氣虛, 肝腎氣虛 등 각기 다른 證候로 나누었다. 外科疾病의 局部望診檢査에 대한 薛立齋의 독특한 見解는 아주 提出할 價値가 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의 診斷에 관하여 薛立齋는 “凡勢下陷者, 皆曰乳岩. 蓋其形岩凸似岩穴也. 最毒, 慎之.”(『外科發揮·乳癰』)라고 하였으며, 腫塊局部의 皮膚가 內陷되는 것을 유방암을 진단하는 지표로 삼았다. 西洋醫學은 유방의 腫瘍이 쿠빅帶를 侵犯하여 人대를 收縮시켰을 때 癌의 表面皮膚가 항상 오므라드는 症狀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유방암의 早期特徵의 하나라고 말한다. 薛立齋가 400餘年前에 이미 이 특징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확실히 수많은 臨床觀察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아주 훌륭한 것이다. 그리고 發背의 透膜與否를 檢査할 때 얇은 종이를 瘡口에 놓고 患者더러 깊게 호흡을 하게 하여 만약 종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瘡瘍이 아직 胸膜腔을 潰穿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방법은 그 당시를 놓고 말한다면 相當히 先進的인 檢査手段이라는 것이 의심할 바 없다.

外治法도 薛立齋가 外科疾病을 치료하는 중요한 手段이다. 주로 4가지가 있는데 즉 針, 砭, 灸, 熨 등이다. 그중 針과 砭은 같은 種類로서 모두 瘡瘍에 膿이 形成한 후 膿을 除去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灸와 熨은 같은 種類로서 대개 瘡瘍에 膿이 形成되기 전에 催膿(膿이 빨리 생기도록 촉진하는 것)과 拔毒(독을 뽑는 것)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薛立齋는 瘡瘍에 膿이 형성되면 응당히 제때에 切開하여 排膿해야 하고 必要時 膿의 排出를 도울 수 있는 藥引(부약)을 사용하여 通暢하게 排出되도록 도와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완

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若膿已成, 宜急開之, 否則, 重者潰通臟腑, 腐爛筋骨; 輕者延潰良肉, 難于收功, 因而不能多矣.”(『外科發揮·卷二』)라고 하였다. 그는 어떤 환자나 심지어醫師들이體質과病情을考慮하지 않고 마구 針砭만 두려워하고 內消法을 強調하는데 대하여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는 “但病者多喜內消 …… 昧者待其自穿, 殊不知少壯而充實者, 或能自解. 若老弱之人, 氣血枯槁, 兼或攻發太過, 不行針刺, 膿毒乘虛內攻, 穿腸腐膜, 鮮不誤事.”(『外科心法·膿潰論』)이라고 말하였다. 최대한 針刺排膿으로 인한 損傷을 減少시키기 위하여 薛立齋는 膿瘍을 針刺하는 適切な 깊이를 把握할 것을 매우 중시하여 “若瘡深而針淺, 內膿不出, 外血反泄; 若瘡淺而針深, 內膿雖出, 良肉受傷; 若元氣虛弱, 必先補而後針. 其膿一出, 諸症自退.”(『外科樞要·論瘡瘍用針宜禁』)이라고 하였다.

薛立齋가 사용한 瘡瘍病을 치료하는 灸法도 獨特한 점이 있다. 그는 “常治一日至五日, 未成膿而痛者, 灸至不痛, 不痛者灸至痛. 若灸而不痛或麻木者, 明灸之, 毒氣自然隨火而散. 腫硬不作膿, 疔痛或不痛或微痛, 或瘡頭如黍者, 灸之尤效. 亦有數日色尚微赤, 腫尚不起, 痛不甚, 膿不作者, 尤宜多灸, 勿拘日期. 更腹甘溫托里藥, 切忌寒涼之劑. …… 大抵發背, 腦疽, 大疔, 懸癰, 脫疽, 脚發之類, 皆由膏粱厚味, 盡力房勞, 七情六淫, 或丹石補藥, 精氣虛怯所致, 非獨因榮衛凝滯而生也. 必灸之, 以拔其毒.”(『外科發揮·卷二』)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薛立齋가 膿이 形成되기 전에는 灸法을 사용하고, 일단 膿이 형성되었을 때는 刺針하여 膿을 排出시키는 것이 適切な 것이며, 膿이 없어진 후 다시 調補법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薛立齋가 사용한 灸法은 대부분 隔物灸이다. 예를 들면 隔蒜灸, 隔豆豉灸, 隔附子餅灸, 隔香餅灸, 隔木香餅灸, 隔葱灸 등이다. 이런 灸法은 直接灸로 인한 火傷을 避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藥物의 透過力을 通하여 瘡瘍局部에 대하여 解毒消腫, 活血行氣, 祛瘀生肌의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內服藥과 같이 사용하면 內

服湯劑의 藥效를 높일 수 있다.

『外科發揮』는 현재 명간본이 보존되어 있는데 中國醫學科學院圖書館과 浙江圖書館에 저장되어 있다. 또 『薛氏醫案二十四種』本에도 있고 大成書局의 石印『薛氏醫案』單行本에도 保存되어 있다.<sup>4)</sup>

### 3. 『外科心法』

薛己가 1528년에 간행한 冊으로서 7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外科에 관한 醫論과 醫案을 著述하였다. 第1~2卷은 여러 醫家들의 診斷과 治療大法을 記錄하였고, 第3~6卷은 薛己 自身の 外科病症治療에 對한 病案을 記錄하였으며, 第7卷은 앞의 各卷에서 使用된 方劑를 記錄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驗方劑까지 附着시켰다. 이 冊 역시 薛己學說의 理論과 臨床을 結合한 著書中의 一部이다.

『外科心法』에 대한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外科心法序

南京太醫院判薛君은 已達於醫하고 而外科尤精이라 手錄古人醫說之要와 與其平日治法之驗者하야 授予觀이라 予素未攻醫나 因讀之하야 考其所謂要與驗者三復하고 恍若有得焉이라

夫醫之爲學은 實難矣라 脈候雖有訣이나 而杳乎入微라 方書雖有傳이나 而艱於對病이라 諸家著說의 連篇累牘하야 望洋法瀚하야 初學者亦難於窺其牖戶나 斂博還約하야 惟曰 察虛實而止爾라 하니 要其在茲乎<sup>1)</sup>지

所集若干條는 皆古名家雜著로 辨脈論症은 一以虛實爲據라 及云參用之에 具得明驗하야 種種在錄이라 察脈證之虛實하야 實其虛하고 虛其實라 하니 治無餘法也라

顧時醫少知其要하고 於凡癰疽疔腫諸危證에 往往不察虛實하고 局守方藥하야 而概以試之於人하야 虛虛實實하야 鮮不爲其所誤라 하니 則此篇不可不公於人也라

乃梓爲一編한새 釐爲七卷하고 總其題曰『外科心法』이라 하니 曰心法者는 古今人相授受하야 契於心而著於法者也라 因趣刻之하고 且僭序諸首簡하노라

4) 嚴世芸主編, 中國醫籍通考(7). 서울 醫聖堂, 1994. p. 4554.

於乎라 學者는 必務知要니 知要則守約하고 守約則垂博라  
니 雖窮天下之事라도 皆可從而理也니 豈直醫家然哉리오

薛은 吳人이니 世以醫名이라 家膺吏禮部오 僉薦擢館院이라  
童時稱得人라고 緡紳間에 且以公廉하니 雅素多之라5)

嘉靖四年 夏四月 上日 資善大夫 南京禮部尚書 前  
戶部侍郎 都察院副都禦史 阜城 沈冬魁는 序하노라

남경 태의원 원판 설기는 이미 의학의 깊은  
경지에 나아갔고 외과에 더욱 정밀하다. 손수 고  
인의 의설의 요점과 평소 치법의 경험을 기록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평소 의학을 전공  
하지는 않았으나 인하여 읽어보고 그 이른바 요  
점과 경험 한 것을 세 번 반복 고찰하고 나서 황  
언이 얻음이 있었다.

대저 의학은 실지로 어려운 것이다. 맥후에 비  
록 비결이 있지만 정미한데 들어가기가 아득하고  
방서가 비록 전해지나 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제가 저설이 책이 널려있고 쌓여있어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고 사막을 보는 것 같으니 초학자  
로서는 또한 그 문안을 바라보기가 어려우나 호  
번한 것을 거두어 요약하여 오직 허실을 살핌  
에 그칠 뿐이라고 하니 요점이 여기에 있음인저.

수집한 조문들은 모두 옛 명가들의 저서에서  
요, 맥과 증상을 구별하고 논한 것은 한결같이  
허실을 증거로 삼았다. 직접 입상에 참여하여 씀  
에 이르러서는 분명한 경험을 얻어 종류, 종류를  
기록해 두었다. 맥과 증상의 허실을 살펴 허한  
것은 실하게 하고 실한 것은 허하게 하니 치법에  
다른 것이 없다.

돌아보건대 당시의 의사들이 그 요점을 알지  
못하고 응저, 정중의 모든 위태로운 증상에 허실  
을 살피지 않고 처방만을 고집하여 일괄적으로  
사람에게 시험하여 허한 것을 더 허하게 하고 실  
한 것을 더 실하게 하여 그릇되게 하지 않음이  
드르니 이 책을 사람들에게 공표하지 않을 수 없  
는 이유이다.

한권의 책으로 인쇄할 때 정리하여 7卷으로 하  
고 제목을 외과심법이라 하니 심법이라고 하는 것

은 옛사람, 지금사람이 서로 주고받아 마음에 합하  
고 법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인하여 재촉하여 간행  
을 하고 또 외람되이 첫머리에 서문을 쓴다.

오호라. 학자는 반드시 요점을 알기를 힘써야  
하니 요점을 알면 지키는 것이 간략하고 지키는  
것이 간략하면 드리우는 것이 넓으니 비록 전하  
의 모든 일이라도 모두 가히 쫓아서 다스릴 수가  
있으니 어찌 단지 의가에게만 그러 하리오.

설기는 소주사람이니 대대로 의사로서 명성이  
있었다. 집안은 吏部와 禮部에서 벼슬했고 모두  
관원에 추천 발탁 되었다. 어렸을 때 得人이라고  
일컬어 졌고 벼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공  
명정대하고 청렴하였으니 어려서부터 본래 그것  
이 많았다.

가정 4년(1525년) 여름 4월 초하루, 자선대부  
남경예부상서 전호부시랑 도찰원 부도어사 부성  
심동괴는 서문을 쓰노라.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과심법은 그의 나이  
39세 때 쓰여진 그의 著書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  
진 책이라고 생각된다.

薛己는 切診에 있어서 역시 外科病人의 脈診  
을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病變局部的 切診도  
중시하였다. 臨床에서 薛立齋는 항상 脈象을 아  
주 중시하였고, 그는 “脈者, 人身之造化, 病機之外  
見, 醫家之準繩, 不可不精究而熟察.”이라고 하였  
다. 따라서 그는 『外科心法』과 『外科樞要』에서 瘡  
瘍二十六脈을 모두 篇首의 가장 뚜렷한 위치에  
놓고 논술하였다. 그는 瘡瘍專用二十六脈의 脈見  
部位, 脈來緩數, 脈形, 脈勢 및 各脈의 主病을 상  
세하게 논술하였다. 脈象을 통하여 瘡瘍病의 病  
位, 病勢, 虛實狀態 및 陰陽屬性을 判斷하며 이  
것으로 治則治法을 確定하고, 또한 瘡瘍病의 進  
退良惡와 預後를 推測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洪  
脈之診, 似浮而大, 按舉之, 則泛泛然滿三部. 其狀  
如水之洪流, 波之涌起. 其主血實積熱瘡腫. 論曰:  
脈洪大者, 瘡疽之病進也. 如瘡疽結膿未成者, 宜下  
之; 膿潰之後, 脈見洪大則難治. 若自利者, 不可救  
也.”라고 하였다. 洪脈이 主證인 瘡瘍病은 病位가  
血分에 있고 病勢가 발전하는 과정이며 多數가

5) 盛維忠主編,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p. 157.

陽熱實證에 속하고 下하는 方法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만약 膿이 潰한 후 洪脈이 나타나면 應當히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그리고 自利症이 同伴하면 預後가 좋지 못하다. 다른 한 방면으로 薛立齋의 病變局部에 대한 切診도 아주 特色이 있다. 그는 瘡瘍局部의 切診을 통하여 瘡瘍의 病位 깊이와 膿이 이미 形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아주 重視하였고, 또한 이 것으로 치료와 藥의 사용을 指導하였다. 그는 “夫瘡候多端, 欲辨淺深, 直須得法……簡而論之則瘡疽概學有三: 腫高而軟者, 發于血脈; 腫下而堅者, 發于筋骨; 肉皮色不相辨者, 發于骨髓; 又曰: 凡療瘡疽, 以手按搖瘡腫, 根平而大者, 深也; 根小而浮者, 淺也.”(『外科心法·辨瘡腫淺深法』)이라고 하였고, “凡瘡疽腫大, 按之乃痛者, 腫深也; 小按之便痛者, 膿淺也. 按之不甚痛者, 膿未成也. 若按之即復起者, 有膿也; 不復起者, 無膿也. ……若發腫都軟而不痛者, 血瘤也. 發腫日漸增長而不大熱, 時時牽痛者, 氣瘤也.”(『外科心法·辨膿法』)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薛立齋는 外科疾病의 預後判斷에 대해서도 아주 중시하였으며, 이것은 應急手段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옛날에 있어서 제때에 預防措置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몹시 의미가 깊은 것이었다. 그는 陳自明이 『外科精要』에서 提出한 瘡瘍病의 부동한 預後인 五善七惡症을 反映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歸納하였으며 또한 매개 症의 臨床意義를 제기하였다. 그는 五善七惡症을 辨할 때 “只知五善併到, 善無以加矣; 七惡併至, 則惡之極矣. 愚意裁之. 凡患瘡疽之時, 五善之中, 乍見一二善證, 瘡可治也; 七惡之內, 忽見一二惡證, 宜深懼之.” 『外科心法·辨瘡疽善惡法』에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五善見三則瘡, 七惡見四則危.” 『外科樞要·論瘡瘍五善七惡主治』와 같은 審證方法은 要點을 簡單明瞭하게 제시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 規則을 알고 臨床에서 아주 쉽게 把握하고 사용할 수 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明嘉靖七年戊子(1528)新書堂刻本(殘卷), 明嘉靖間刻本, 『薛氏醫案二十四種』本, 清乾隆四十一年丙申(1776)胎經堂刻本, 『薛氏

醫案』石印單行本 등이 있다.<sup>6)</sup>

#### 4. 『外科經驗方』

薛己가 1528년에 간행한 冊으로서 1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腫瘍, 潰瘍, 疔瘡, 乳癰, 癰疽, 咽喉, 口齒, 囊癰, 下疳, 痔瘡, 便毒, 懸癰, 膝瘡, 湯火, 小兒丹毒 등 여러 外科病症의 臨床經驗方劑들을 分別하여 論述한 著書이다. 현존하는 판본은 『薛氏醫案二十四種』本과 石印『薛氏醫案』單行本이 있다.

#### 5. 『外科樞要』

1571년에 간행되었으며(1545년에 완성) 4卷으로 되어 있는데, 第1卷은 瘡瘍에 對한 21篇의 證候辨證을 記錄하였고, 第2~3卷은 病證을 綱目으로 삼아 全身 各部位 30餘種 瘡瘍의 證治를 각자 論述하고 病案도 附着하였으며, 第4卷은 瘡瘍各證의 治療方劑를 모두 排列하여 說明하였다. 이 冊은 論述이 簡略하고 外科瘡瘍에 對한 辨證과 豫候의 內容을 相當히 많이 說明하였으며, 薛己學說의 理論과 臨床을 結合한 重要한 外科著書이다.

이 책에 대한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刻外科樞要序

往余少時에 獲交於立齋薛先生하니 嘗與余通書하여 所手鈔筭襲者亡算이오 時時竊好之하여 弗置也리라 嘉靖戊午에 余上奏官한새 先生報病瘍이러니 比舉進士歸則先生死矣라 先生은 神於醫 而以瘍擅名하니 所爲諸瘍書에 甚具라 凡病瘡腫 癰疽 疔瘡 癰疽 經先生診治면 亡不立已라 然이나 卒因瘍死하니 故人多訾先生이 以爲執泥補法하여 不知合變이라 하니라 嗟乎라 冤哉其言之也어 始余識先生時에 婦病腫瘍 瀕死에 先生竟活之하니 語在醫案中 하니라 當是時하여 諸醫抱藥囊環立하여 咸愕吐舌하고 不敢出一語로대 而先生이 率意信手로 日劑一二에 不動聲色하고 坐而收功하니 如充國金城之兵이 方略豫定하여 其正翁張에 動中成算하니 即是以例라 先生之醫는 殆所謂神解者어늘 而世乃以執泥訾之하니 豈非貴耳賤目者衆邪아 語云 尺有所短이오 寸有所長이라 하니 必

6) 嚴世芸主編, 中國醫籍通考(7). 서울 醫聖堂, 1994. p. 4556.

若所云이면 是越人至今存이며 而軒岐不古也라 嘻亦悖矣라 昔揚子云이 作太玄法言하니 桓譚이 以爲必傳이라하고 且謂世人親見子云 故로 輕其書라하니라 當時博聞如劉歆도 亦恐後人用覆醬甑라 然則世之所爲訾先生은 亡乃類是也乎아 乃余則以爲醫顧業精否耳라 業誠精矣면 當必有排衆說而獨是之者하니 一時知不知亡論也라 先生沒에 諸版刻이 漸次流散하야 余悉爲購得之러니 而先生從子師顏이 復手外科樞要一編하야 示余하니 蓋不獨補諸刻之所未備而立이오 凡舉要深하야 足爲瘍家指南인세 因屬師訂並刻之라 余固親見先生者가 方愧不能爲先生之桓譚이나 而師顏之克世家學은 則劉歆之慮니 吾知其免矣라 夫先生諸他著作은 世多有其書하니 不論所爲오 序本樞要하야 論所由刻云이다7)

隆慶辛未夏五既望에 木隸李沈啟原 道卿은 撰하노라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에 설립재 선생과 교류를 하였는데 일찍이 나와 편지를 주고받아 손수 베껴서 상자에 쌓아둔 것이 이루 셀 수 없었고 때때로 그옥이 좋아하여 그냥 두지를 앓았었다. 가정 무오년(1558년)에 내가 북경에 가서 과거를 볼때 선생이瘍病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사에 올라 돌아와 보니 선생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다.(설립재는 1559년에 死하였다) 선생은 의술에 있어서 귀신같은 분으로瘍醫로써 명성을 날렸으니 몸소 지은瘍書(외과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무릇癰腫, 癰疽, 疔毒, 癩癧는 선생의 진단과 치료를 거치면 즉시 낫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끝내瘍病으로 돌아가시니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께서 보법을 고집해서 습습을 알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많다. 아! 원통하다. 이 말이여. 처음 내가 선생을 알았을 때에 한 여자가腫瘍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선생께서 마침내 살려내셨으니 이 내용이 의안중에 있다. 이때에 모든 의사들은 약주머니만 안고 빙 둘러서서 모두 놀라 혀를 내밀고 감히 한마디 말도 못했으되 선생은 마음대로 손을 움직여 하루에 약을 한두번씩 지으면서 소리와 얼굴색도 움직이지 않고 앉은자리에서 공을 거두니 마치 充國의金城의 병사들이 方略이 이미 있어서 후퇴

와 전진함에 움직임이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딱딱 들어맞으니 곧 이것으로써 예를 들어야 할 것이다. 선생의 의술은 거의 이른바 귀신의 경지에 올랐거늘 세상에서 보법만을 고집했다고 비판하니 어찌 귀만 소중히 여기고 눈은 천시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옛날에 이르기를 한자도 짧은 경우가 있고 한 촌도 긴 경우가 있다하니 만약 말한 바와 같다면 편작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며 황제와 기백이 먼 옛날사람이 아닌 것이다. 아!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옛날 양자운이 태헌경과 법언을 지으니 환담이 반드시 후세에 전해질 것이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직접 양자운을 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소홀히 여길 것이라고 하니라. 당시의 박학다문했던 유흠 같은 사람도 또한 후세 사람들이 장독을 뒤집어엮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선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류가 아닌가. 나는 의사는 그 업이 정밀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볼 뿐이라고 생각한다. 업이 진실로 정밀하면 마땅히 반드시 대중의 설을 물리치고 홀로 옳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 한때에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는 논할 것이 없다. 선생께서 돌아가심에 모든 版刻이 점차 흩어져서 내가 모두 사서 얻었더니 선생의 조카 師顏이 다시 외과추요 한 책을 손에 들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니 대개 모든 판각의 미비한 것을 보충해서 세워 줄 뿐만 아니라 요점을 들고 깊이가 있어 족히瘍科의 나침반이 되겠기에 인하여 校正을 부탁하고 아울러 판각에 새겼다. 내가 본래 선생을 친견한 것이 바야흐로 선생의 환담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우나 師顏이 능히 가학을 대대로 전하는 것은 유흠의 염려니 나는 그 책임이 면하여 짐을 알겠도다. 대저 선생의 기타의 저작은 세상에 그 책이 많이 있으니 달리 논하지는 않겠고 외과추요에만 서문을 써서 판각하게 된 유래를 논한다.

윤경 신미년(1571년) 여름 5월 16일에 취리의 심계원, 도경은 짓노라.

위 내용은 薛己와 生前에 교분이 있었던 沈啓

7) 薛己, 薛氏醫案(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45.

源이 평소에 보았던 薛己의 위대한 의술을 기술하고 그의 사후 溫補를 고집하여 그가 죽게 되었다는 世間の 비평을 일축하는 글로 설기 사후 12년 뒤에 外科樞要를 간행하면서 쓴 글이다.

薛立齋의 外科治療學의 내용은 아주 豊富하다. 한 방면으로 整體觀念과 辨證論治를 토대로 설립된 外科內治法은 薛立齋의 提倡으로 明代 때 크게 발전을 갖게 되었다. 다른 한 방면으로 全身狀況의 多樣化한 局部外治法을 結合하여 各種 傳統外治法이 進一步 발전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理論的指導의 軌道에 오르게 하였다.

宋元代的 外科內治에는 이미 辨證思想이 조금 나타났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臨床醫家들은 아직은 局部治療를 爲主로 着眼하고 있었다. 薛立齋는 辨證論治를 強調하고 治病求本, 扶正祛邪, 標本緩急, 表裏攻補, 相因制宜 등 原則에 대하여 아주 치밀한 總括을 하였다. 그는 “瘡瘍之作 ……當審其經絡受證, 標本緩急以治. 若病急而元氣實者, 先治其標; 病緩而元氣虛者, 先治其本. 若病急而元氣又虛者, 必先于治本而兼以治標.” 『外科樞要·論瘡瘍當明本末虛實』이라고 하였다. 治療方法에서 그는 外科의 傳統的인 消, 托, 補등 內治三法에 대하여 충분히 發揮하여 瘡瘍의 治法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分類하였고 여러 가지 內科治療手段을 外科瘡瘍의 치료에 사용하였는데, 즉 疏通, 發散, 和解, 補托, 峻補, 溫補 등 여러 方法이 있다. 具體的인 用法은 “假如腫痛熱渴, 大便秘結者, 邪在內也, 疏通之; 腫焮作痛, 寒熱頭疼者, 邪在表也, 發散之; 焮腫痛甚者, 邪在經絡也, 和解之; 色黯微痛而不作膿者, 氣血虛也, 補托之; 漫腫不痛, 或不作膿, 或膿成而不潰者, 氣血虛甚也, 峻補之; 色黯而微腫痛, 或膿成不出, 或腐肉不潰者, 陽氣虛寒也, 溫補之.” 『外科樞要·論瘡瘍未潰用敗毒之藥』라고 하였다. 이상 治法으로부터 薛立齋가 溫補法에 능숙하다는 特徵을 充分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上記 6가지 治法에 補法이 3가지가 있다. 그런데 實際應用에서 內科八法과 매개 방법으로부터 化生된 여러 가지 治法, 즉 예를 들면 活血化瘀, 導濕化痰, 疏肝解鬱

등은 모두 薛立齋의 醫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方法中에서 가장 중시를 받는 것은 역시 補益胃氣法이다. 그는 胃臟이 五臟의 根本이고 일단 胃氣가 虛해지면 여러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즉 “瘡瘍之作, 由胃氣不調; 瘡瘍之潰, 由胃氣腐化; 瘡瘍之斂, 由胃氣榮養.”이라고 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특수 상황에서 脾胃를 溫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치료하였다. 예를 들면 病人을 놓고 말하면 “大凡怯弱之人, 不必分其腫潰, 惟當先補胃氣.” 『外科樞要·論瘡瘍當明本末虛實』이라고 하였고, 病種을 놓고 말하면 예컨대 流注, 鶴膝風, 附骨疽 등 病에 대하여 모두 “溫補脾胃爲主”로 하였다. 病位를 놓고 말하면 “凡瘡聚于筋骨之間, 肌肉之內, 皆因血氣虛弱, 用十全大補湯, 壯其脾胃, 則未成自散, 已成自潰.” 『外科樞要·論瘡瘍去腐肉』라고 하였다. 病情을 놓고 말하면 대저 瘡瘍이 潰한 후 脾胃肌肉의 원칙에 근거하여 “但當純補脾胃, 不宜泛敷生肌之劑” 『外科樞要·論瘡瘍用生肌之藥』라고 하였다. 言及할 價値가 있는 것은 薛立齋가 溫補를 잘 쓰는 것으로 이름이 낳지만 寒涼攻伐藥을 완전히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余嘗治脈症虛弱者, 用托裡之藥則氣血壯而肉不死; 脈症實熱者, 用清熱之劑則毒氣退而肉自生.” 『外科樞要·論瘡瘍去腐肉』라고 말하였고, 몸이 實하고 瘡瘍이 初發한 者에게도 大多數 寒涼毒藥을 써서 治療하였다. 邪氣가 內에 있으면 攻下法을 使用하고 邪氣가 實하면 寒涼藥으로 解利한다. 예를 들면 腸癰의 治療에서 “脈遲緊者, 未有膿也, 用大黃湯下之, 脈洪數者, 已有膿也, 用薏苡仁湯排之; 小腹疼痛, 小便不利, 膿癰滯也, 牡丹皮散主之.” 『外科樞要·腸癰』라고 하였는데 그중 大黃湯, 薏苡仁湯 및 牡丹皮散은 모두 寒涼攻逐의 작용이 있는 方劑들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狀況에서 薛立齋는 寒涼藥을 매우 慎重하게 사용하였다. 그는 “藥不辨其陰症陽症之所由分, 而妄敷寒涼之劑, 迷塞腠理, 凝滯氣血, 毒反內攻, 而肉反死矣. 況運氣得寒而不健, 瘀血得寒而不散, 瘀肉得寒而不潰, 新肉得寒而不生, 治者審焉.” 『外科樞要·論瘡瘍圍寒涼之藥』이

라고 明確히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薛立齋가 病因을 辨하지 않고 瘡瘍만 보면 모두 熱毒으로 인정하여 苦寒劑로 치료하는 方法을 反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런 觀點은 우리가 參考할 價値가 있다.

事實 薛立齋가 各種 外科病證을 治療하는데 內外治療法을 서로 結合하여 治療하는 方法을 더욱 많이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陽虛有瘀證을 치료할 때 化瘀하는 藥을 쓰지 않고 接補陽氣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桑木(뽕나무)으로 外部를 灸하고 參芪歸朮湯을 服用하게 하였다. 潰瘍便秘證의 治療에서는 內的으로 氣血을 補하고 外部로는 돼지의 膽汁으로 導出し키하는 方法을 사용하여 津液을 保存케 하는 등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外科樞要』에서 그는 瘡瘍餅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표현을 상대로 각기 다른 內外結合의 治療方法을 列擧하였는데, 즉 “設腫痛熱渴, 脈滑數而有方, 屬純陽, 宜用濟陰丹, 外用益陽散, 則熱自解, 瘀滯自散. 若似腫非腫, 似痛非痛, 似潰不潰, 似赤不赤, 脈洪數而無力, 屬半陽半陰, 宜內用衝和湯, 外用陰陽散, 則血氣自和, 瘀滯自消. 藥微腫痛, 或色黯不痛, 或堅硬不潰, 脈洪大, 按之微細軟弱, 屬純陰, 宜內服回陽湯, 外敷抑陰散, 則非胃自健, 陽氣自回.”이라고 하였다. 이런 經驗은 지금의 外科臨床에 있어서 어떻게 한 의학의 特色을 發揮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깊은 參考의 意味가 있는 것이다.

『外科樞要』는 현재 明 隆慶間刊本이 보존되어 있는데 上海孟河丁氏思補山房에 저장되어 있다.

## 6. 『瘡瘍機要』

1554년에 간행된 冊으로서 3卷으로 되어 있는데, 麻風病(癩病)을 專門으로 論述한 著作으로 주로 麻風病의 本症, 變症, 兼症, 類症의 辨證治療와 驗案 및 治療方藥에 대하여 分別하여 詳細히 論述하였다. 上卷에서는 우선 瘡瘍의 病因, 病機, 病位 및 治療原則에 대하여 論하였고, 다음에 瘡瘍의 本證治法, 兼證治法, 變證治法 및 各種 類

似病證에 대하여 論하였으며, 마지막에 本證의 治驗과 類證의 治驗에 대하여 紹介하였다. 中卷에서는 諸症에 대한 治療를 이어서 論한 것으로 男性, 婦人, 小兒의 各種 瘡瘍의 證治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下卷에서는 각 病症에 使用되는 處方 109개에 대해 紹介하고 있다. 이 冊은 醫案病例을 比較的 많이 收集하였고, 病候의 句節과 題目에 對한 論述이 明白하여 後世醫家들이 麻風病을 研究하는 重要한 參考書籍이 되었다.

『外科樞要』를 간행하면서 서문을 썼던 심계원의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瘡瘍機要序

夫醫는 猶理也니 醫之有瘡醫는 猶理之有兵也라 善爲理者는 正其五官하고 齊其百司하야 使紀綱法度로 各有所攝而不弛 則垂拱委裘而天下可以無變이오 不幸而一隅乘釁然後에 不得已而兵之라 故兵은 非理之所尚也오 將藉以除亂也라 彼其平居無事之時에 而吾所以弭亂之本은 既已縝密完固하야 而無所疏漏오 一旦有急則除之而已耳라 故兵雖試而國家之元氣不虧라 醫之爲道也亦然하니 方其病在腠理也에 湯液之所及也오 其在腸胃也에 湔澣之所及也오 若夫隆然皮膚之間에 甚至不可名狀者 彼何爲哉아 其能不攻刺乎에 其能不搏擊乎아 顧攻은 有守而後攻하고 擊은 有備而後擊이라 苟不諱其虛實하고 不量其壯羸 而動曰攻擊이면 吾恐病未卻而精已耗라 譬則忿兵數逞而國計內空이니 疥癬之疾이 將不爲腹心之患者幾希니 噫라 可不慎乎아 故明於理者는 可與語醫也라 已世之以瘍名家者多矣로대 然孰有如我立齋先生者耶아 蓋先生은 以岐黃世業하고 旁通諸家하야 微詞頤旨에 靡不究竟이라 其言以爲不知外科者는 無以通經絡之原委하고 不精內經者는 無以究陰陽之變合이니 內外殊科나 其揆一也라하니라 故其視病에 不問大小하고 必以治本爲第一義라 無急效하고 無近期하며 紆徐從容이면 不勞而病自愈라 間出『瘡瘍機要』一編하야 屬其友沈生梓之以傳이라 沈生讀之하니 大率以己意로 而訂古方하며 以醫案而驗治效하며 以調補로 爲守備之完策하며 以解利로 爲攻擊之權宜하니 蓋不出乎廟堂之評議 而坐得夫催陷廓清之術이라 假令業醫者而孰是焉이면 既不病於滯而不通하며 又不病於膚而無本이니 奚至攻其所習 而毀所不見耶아 噫라 若先生者는 可謂醫而通理者矣라 是錄也오 願不可傳哉아 或者曰 誠若所言이면 則內外醫가 分門異業者는 非歟아 周官有疾醫 瘍醫

二職<sup>하야</sup>並存<sup>은</sup>何也<sup>오</sup>. 曰 非是之謂也<sup>라</sup>. 昔秦越人之爲醫也<sup>에</sup> 聞秦貴小兒則小兒醫<sup>하고</sup> 趙貴婦人則帶下醫<sup>하고</sup> 周貴老人則耳目瘵醫<sup>하야</sup> 一醫<sup>而</sup>三習<sup>하니</sup> 非其術誠奇幻<sup>이오</sup>. 理固不殊也<sup>라</sup>. 若周官所存<sup>은</sup> 則以其職言耳<sup>니</sup>. 豈知後世判爲兩途<sup>하야</sup> 絕不相通者哉<sup>아</sup>. 古之任官<sup>에</sup> 居則爲命卿<sup>하고</sup> 而出則爲命將<sup>하니</sup> 夫一人也<sup>로대</sup> 而理與兵兼焉<sup>이니</sup> 孰謂內外醫가 果不相通者哉<sup>아8)</sup>

嘉靖 歲甲寅 中秋 秀州 沈啟原 道卿甫 著<sup>하노라</sup>

대저 의술은 정치와 같으니 의술에瘍醫가 있는 것은 정치에 군대가 있는 것과 같다. 정치를 잘 하는 사람은五官을 바르게 하고 百司를 가지런히 하여 기강과 범도로 하여금 각각 다스리는 바가 있어 늘어지지 아니하게 하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장을 끼고 갑옷은 버려두되 천하는 변동이 없을 것이요, 불행히 한 모퉁이에 틈이 생긴 연후에 부득이 해서 군사를 쓴다. 그러므로 군사는 정치에서 숭상하는 바가 아니요, 장차 그것을 빌려서 난리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군사는 평소에 일이 없을 때에는 내가 난리를 그치게 하는 근본은 이미 치밀하고 견고하여 세어나가는 곳이 없고 하루아침에 급한 일이 있으면 다스려서 그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군사가 비록 쓰여지되 국가의 원기는 휴손 되지 않는다. 의도도 또한 그러하니 바야흐로 병이 주리에 있을 때에는 탕액이 미치는 바요, 장위에 있을 때에는 탕척하고 씻어내는 것이 미치는 바요, 만약 피부사이에서 성하고 심지어 형상을 이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것을 어찌 할 것인가? 그 능히 공격하여 자침하지 않을 것이며, 그 능히 치지 않은 것인가? 돌이켜 보건대 공격은 지킴이 있는 뒤에 공격하고 치는 것은 대비가 있는 뒤에 치는 것이다. 진실로 그 허실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 건장함과 수척함을 헤아리지 않고 문득 공격을 한다고 하면 나는 병이 몰러가지도 않았는데 정기가 이미 모손될까 두렵다. 비유해보면 성내는 군사를 자주 일으키면 나라의 계획이 안에서 텅비게 되니 개선처럼 작은 병이 장차 腹心の 근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것이니 아! 가히 삼가

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정치에 밝은 자는 가히 더불어 의술을 말할 수 있다. 이전 세상에瘍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자가 많았지만 어느 누가 우리의 설립재 선생 같은 자가 있었겠는가. 선생은 의학을 대대로 업으로 하였고 두루 제가를 통하여 미묘한 말과 깊은 뜻에 끝까지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가 말하기를 외과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경락의 本末을 통하지 못하고 내경에 정통하지 못한 자는 음양의 畛變을 연구할 수 없으니 내과, 외과가 비록 다르지만 그 법은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병을 볼때 대소를 묻지 않고 반드시 근본을 치료하는 것으로 첫 번째 뜻을 삼았다. 효과를 급히 서두르지 않고 치료기간을 가까이 잡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기다리면 수고하지 않아도 병이 스스로 낫는다고 하였다. 근자에 여양기요 한 책을 내어서 친구인 나 심계원에게 인쇄하여 전할 것을 부탁하였다. 내가 그것을 읽어보니 대개가 자신의 뜻으로써 古方을 정정하고 의안에 치료효과를 징험하였으며 調補法으로 수비하는 완전한 계획을 삼았고 해부의 예리함으로 공격하는 권도의 마땅함을 삼았으니 대개 종묘에서의 계획이 드러나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앉아서 재촉하여 함락시키고 세상의 혼란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얻은 것이다. 가령 의를 직업으로 하는 자가 이를 잡으면 이미 막혀서 不通하는 폐단이 없고 또 標만 치료하고 本을 치료하지 않는 병통이 없으니 어찌 공격만 익숙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바를 훼손하는 데에 이르겠는가. 아! 선생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의사로써 정치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도다. 이 기록을 가히 후세에 전하지 않겠는가. 후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면 내과의, 외과의로 분야를 나누어 업을 달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주관에 질의(내과의), 양의(외과의)의 두 직책을 두어 병존시킨 것은 어찌서인가. 이르기론 이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옛날 진월인이 의사노릇을 할 때에 진나라에서는 어린애를 귀히 여긴다는 소문을 듣고 소아과의사를 하고 조나라에서는 부인을 귀하게 여기자 부인과 의사를 하고

8) 薛己, 薛氏醫案(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1.

주나라에서는 노인을 귀히 여기자 이목비의가 되어서 한 사람의 의사로써 세 가지를 익혔으니 그의 의술이 진실로 기이하고 이상했던 것이 아니고 이치가 진실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周官의 제도는 직책으로 말한 것일 뿐이니 어찌 후세처럼 확연히 둘로 나누어 전혀 상통하지 않는 것과 같겠는가. 옛날에 관리를 임용할 때 도성 안에 있을 때는 명하여 경을 삼고 밖으로 나가면 명하여 장군으로 삼나니 대저 같은 한사람이지만 정치와 군사를 겸한 것이니 누가 내과의, 외과의가 과연 상통하지 않는다고 이르리오.

가정 갑인년(1554년) 중추월(음력 8월) 수주의 심계원, 도경은 쓰노라.

위의 내용은 薛己가 죽기 5년전 평소에 기록해 두었던 나병치료에 대한 내용을 묶어 그의 친구인 심계원으로 하여금 간행하게 했다는 것이 쓰여져 있다. 『癘瘍機要』는 現在 明나라 刻本 『薛氏醫案』 單行本이 保存되어 있고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에 저장하고 있으며, 日本 承應三年(1654년)의 武村市兵衛刻本은 上海圖書館과 廣州中山醫學院圖書館에 저장되어 있으며, 『家居醫錄』本은 문장 뒷부분의 內容을 參考 할 수 있다.

## 7. 結 論

薛己의 外科醫書와 그 內容에 관하여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薛己의 外科書의 편찬순서는 『外科心法』(1528년)이 가장 먼저 완성되었고 이후 『外科發揮』(1528년), 『外科經驗方』(1528년), 『外科樞要』(1545년), 『癘瘍機要』(1554년)의 順이다.
2. 薛己는 以前의 瘍醫들이 症에 따라 處方을 내는 惡習을 改變하여 外科臨床에 辨證論治를 導入하였다.
3. 望診에서 局部的 診察뿐만 아니라 全身의 상태도 중시하였으며 四診合參을 중시하되 특히 望診과 切診을 중시하였다.

4. 治療에 있어 疏通, 發散, 和解, 補托, 溫補 등의 方法을 活用하였으며 針, 砭, 灸, 熨의 外治法도 善用하였다.
5. 설기가 지은 『癘瘍機要』는 早期에 刊行된 麻風病 專門書이다.

## 參考文獻

1. 朴載正, 薛己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5.
2. 薛己, 薛氏醫案(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 盛維忠主編,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4. 嚴世芸主編, 中國醫籍通考(7). 서울 醫聖堂, 1994.
5. 李林等編著, 首創溫補의 薛己.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0.